

---

碩士學位論文

日本語의 指示語 研究

指導教授 金勝漢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姜 一 奉

1998年 8月

# 日本語의 指示語 研究

指導教授 金 勝 漢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1998年 6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姜 一 奉



姜一奉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문초록>

日本語의 指示語 研究

姜 一 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 專攻

指導教授 金勝漢

한일 양국어의 지시사는, '이, 그, 저'와 'こ, そ, あ'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용법상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일본어의 지시사를 학습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사점은 이해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더 혼동을 일으켜 충분한 언어 습득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어의 지시사의 용법을 자세히 고찰하여 좀 더 바르고 정확한 일본어의 이해를 위하여 본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 2장에서는 일본어의 지시사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지시사의 용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제 3장과 4장에서는 지시사 科, ソ, ア의 용법을 현장지시와 문맥지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현장지시용법의 科와 ソ는, 화자와 청자가 대립하는 대립형의 상황과, 화자와 청자가 '우리들'이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융합형의 상황으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되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ア는 융합형의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융합형으로 고찰하였다.

대립형 科는,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융합형 科는, 화자와 청자의 공동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대립형 ソ는, 대화공간내에서 화자의 개인공간외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융합형 ソ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공간내에 있으면서 아로 가리키기에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아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공간 혹은 공동공간밖의 먼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문맥지시용법은, 지시사 科, ソ, ア를, 상대가 표현한 내용이나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상대표현지시'와, 화자 자신이 표현한 내용이나 일 자체 혹은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자기표현지시'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상대표현지시 ㄴ는, 대화중에서 상대가 표현한 내용이나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생생한 일로, 자신에게 강한 관계를 가진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쓰인다. 자기표현지시 ㄴ는, 청자(독자)와의 거리감을 없애주고, 마치 현재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의 일', '당장 해결해야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느낌이 강할 때 쓰인다.

상대표현지시 ㄷ는, 상대방의 대화내용이나 그 내용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할 때 쓰인다. 자기표현지시 ㄷ는, 자기의 선행 서술내용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을 중립적인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할 때 쓰인다.

상대표현지시 ㄹ는, 지시대상이 비록 물리적·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자 자신이 그 지시대상과 어떠한 형태로든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할 때 쓰인다. 자기표현지시 ㄹ는, 자기의 표현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까마득한 일이지만, 강한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자할 때 쓰인다.



## 목 차

I. 서론	1
II. 지시사 연구의 흐름	3
2.1. 현장지시	3
2.2. 문맥지시	8
III. 현장지시용법	10
3.1. コ의 용법	10
3.1.1. 대립형 コ	10
3.1.2. 융합형 コ	11
3.2. ソ의 용법	14
3.2.1. 대립형 ソ	14
3.2.2. 융합형 ソ	17
3.3. ア의 용법	20
IV. 문맥지시용법	22
4.1. コ의 용법	22
4.1.1. 상대표현지시 コ	22
4.1.2. 자기표현지시 コ	24
4.2. ソ의 용법	29
4.2.1. 상대표현지시 ソ	29
4.2.2. 자기표현지시 ソ	30
4.3. ア의 용법	33
4.3.1. 상대표현지시 ア	33
4.3.2. 자기표현지시 ア	34
V. 결론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2

# I. 서론

한일 양국어의 지시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한국어의 지시사 '이, 그, 저'가 일본어의 'こ, そ, あ'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법상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면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어의 지시사를 학습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사점은 이해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더 혼돈을 일으켜 충분한 언어 습득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어의 지시사의 용법을 자세히 고찰하여 좀 더 바르고 정확한 일본어의 이해를 위하여 본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지시사의 연구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명사(コレ, ココ), 형용사(コンナ), 부사(コウ)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품사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구문론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코, 소, 아의 사용상의 구분 원리를 규명하는 의미론적 측면이다. 본고에서는 의미론적 측면인 지시사 코, 소, 아의 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 2장에서는 일본어의 지시사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지시사의 사용상의 구분 원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의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 3장과 4장에서는 지시사 코, 소, 아의 용법을 현장지시와 문맥지시<sup>1)</sup>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지시사에서는 이 두 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며, 이 두 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일본어의 지시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2)</sup>

현장지시용법이란, 화자와 청자(상대)가 눈앞에 있는 지시대상을 손짓이나 몸짓으로 지시하면서 대화할 때 쓰이는 지시사의 용법을 말한다. 가령 식탁에 마주앉아서 식탁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가리키며 나눌 때, 그 대화에 나오는 코, 소, 아의 용법이 현장지시용법이다.

문맥지시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대화중에

1) 久野暲은 현장지시용법과 문맥지시용법을 '眼前指示'와 '非眼前指示'라 하였고, 黒田成彦은 '獨立的用法'과 '文脈的用法'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2) 堀口和吉은, 지시사의 용법을 現場指示, 文脈指示, 知覚対象指示, 觀念対象指示, 絶対指示로 나누었다.

나오는 대상을 지시하는 용법이다. 가령 화자 A가 「昨日ポストンで山田さんに会いました。」고 말한 경우에 청자 B가 「**あの**人は最近どうしていますか」라고 되물었다고 할 때 **ア**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 이 때 **ア**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이미 나와 있는 「山田さん」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쓰이는 **コ**, **ソ**, **ア**를 문맥지시용법이라고 한다.

지시사의 용법을 고찰하는데 필요한 예문은, 주로 일본문부성검정 교과서(日本文部省検定教科書)인 光村(미츠무라)출판사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1~6학년 상하 2권씩 모두 12권)에서 발췌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문은 학자들이 인용하였던 것을 재인용하였다.



## II. 지시사 연구의 흐름

현대 일본어 지시사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침을 마련한 학자들로 佐久間鼎(사쿠마 카나에), 三上章(미카미 아키라), 阪田雪子(사카다 유키코), 服部四郎(हत토리 시로), 久野暲(쿠노 스스무), 堀口和吉(호리구치 카즈요시), 正保勇(마사호 이사무), 吉本啓(요시모토 케이), 江口巧(에구치 타쿠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佐久間(1936,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의 연구는 일본어 지시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3)</sup>

이들은 지시사의 용법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지시사에 관한 초기의 학설로는, 화자(話者)를 중심으로 하여 지시대상과의 거리의 멀고 가까움으로 구분하는 거리구분설을 들 수 있다. 그 이후 佐久間は 청자(聽者)의 존재까지를 고려하여 자칭(自稱), 대칭(對稱), 타칭(他稱)으로 구분하는 인칭구분설을 주장하였고, 三上은 화자와 청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느냐 융합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이항대립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항대립설에 바탕을 두면서도 コ, ソ, ア가 모두 쓰인다는 삼자공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 2.1. 현장지시

현장지시는, 연구의 흐름을 거리구분설, 인칭구분설, 이항대립설, 삼자공존설로 나누어 개관해 보고자 한다.

#### 2.1.1. 거리구분설

佐久間(1936)이전의 지시사에 대해서는 古田東朔(후루다 토사쿠 ; 1980)의 연구<sup>4)</sup>에 잘 나타나 있다. 明和4年 (1767)의 富士谷成章(후지타니 나리아키라)의

3) 金水敏·田澤行則(1992), 「日本語指示詞研究史からへ」 『指示詞』, ひつじ書房, pp.154~155.



『かざし抄』에는 コ, ソ, カ, ア의 쓰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그 후 大槻文彦(오츠키 후미히코)는 『語法指南』(1889)에서 화자로부터 지시대상까지의 거리에 의하여 コ, ソ, ア, ド로 구분하여 각각 「近稱·中稱·遠稱·不定稱」이라 명명하고 <표 II-1>과 같이 나타내었다.<sup>5)</sup>

<표 II-1> 富士谷成章의 지시사 체계표

	近 稱	中 稱	遠 稱	不 定 稱
事 物	これ こ	それ そ	あれ あ かれ か	いづれ なに <ど> (どれ)
地 位	<こ> ここ	<そ> そこ	<あ> あしこ あそこ <か> かしこ	いづこ いづこ (どこ)
方 向	<こ> こなた	<そ> そなた	<あ> あなた <か> かなた	いづかた (どなた)
	<こ> こち	<そ> そち	<あ> あち <か>	いづち (どち)

비슷한 시기에 외국인의 연구로 아스톤(W. George Aston)의 연구가 있다. 그는 A Grammar of the Japanese Written Language 『日本文語文典』(1877)의 제 2판에서 コ, ソ, カ, ア 계열의 지시사의 쓰임을 설명하였다.

*Ko, kore, kono* are said of things conceived to be near, or belonging to the speaker. ... *So, sore, and sono*, 'that', are said of persons and things which are regarded as near, or in some way connected with the person addressed. ... *Ka, kare, a, are* have been noticed as personal pronouns of the third person, but as already observed, they are really demonstratives. ... At the present time the distinction between *kare* and *are* is that the former is confined to the written language, and the latter to the spoken idiom. In the older language both words are in use, but a difference of meaning is recognized, *kare* being applied to the less remote, and *are* to the more remote, of person or objects not conceived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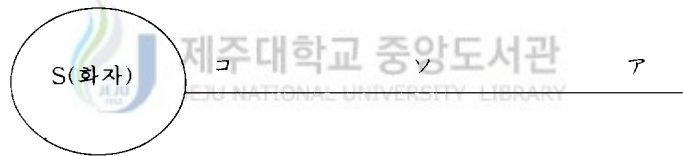
4) 古田東朔(1980), 「コンアド研究の流れ(一)」, 『指示詞』, ひつじ書房, p.15.

5) 古田東朔(1980), 상계서, p.15.

as immediately present before the speaker or the person addressed.<sup>6)</sup>

(コ・コレ・コノ는, 화자에게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되든가, 또는 화자에게 속해 있는 사물에 대해서 쓰인다. … ソ・ソレ・ソノ(that)는, 말하는 상대에 가깝다고 생각되든지 또는 어떠한 면으로든 말하는 상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쓰인다. …カ・カレ와 ア・アレ는 3인칭의 인칭대명사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지시대명사이다. … 오늘날 カレ와アレ의 구분은, 전자가 문어체에 한정되고 후자가 구어체에 한정되어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양쪽 모두 쓰였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었다. カレ는 그다지 멀리 떨어진 것에,アレ는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화자나 말하는 상대의 앞에 직접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쓰였다.)

그 이후에도 松下大三郎(마츠시타 다이사부로 ; 1901), 山田孝雄(야마다 요시오 ; 1908), 安田喜代門(야스다 키요문 ; 1928)<sup>7)</sup>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때까지는 지시사 コ, ソ, ア를 각각 근칭, 중칭, 원칭이라 하고, 화자에게서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コ, ソ, ア로 배분하는 거리구분설이 한동안 우세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도 1)과 같다.



(도 1)

이 화자를 중심으로하는 거리구분설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를 가지고 모든 지시사를 설명할 수는 없다.

흔한 예로, 화자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닌 청자의 손

6) 吉田東朔(1980), 상계서, pp.21~23.

7) 安田喜代門(1928), 「代名詞」·『國語法概説』, 中興館, p.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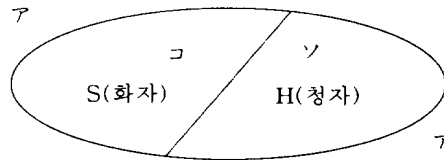
安田은,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진다고 하였다. 청자보다 화자쪽에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근칭(코)이라 하고, 화자보다 청자쪽으로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중칭(소)이라 하고, 화자·청자의 어느 쪽으로 부터도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원칭(아)이라고 하였다.

에 있는 것이라면 ア를 쓰지 않고 ソ를 쓴다. 또한, 화자에게서 멀리 있는 것을 ソ로, 가까이 있는 것을 ア로 가리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2.1.2. 인칭구분설

佐久間(1951)는, 청자의 존재를 도입하여 화자의 손이 닿는 범위내는 コ, 청자의 손이 닿는 범위내는 ソ, 이러한 세력범위외는 ア에 속한다고 하면서, コ, ソ, ア를 각각 자칭(自稱), 대칭(對稱), 타칭(他稱)과 대응시키는 소위 인칭구분설을 주장하였다.

이 인칭구분설은 청자의 영역을 고려에 넣는다는 점에서 화자 중심의 거리구분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도 2)와 같다.<sup>8)</sup>



(도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佐久間に 의하면, '화자(S)와 청자(H)를 중심으로 대화의 場이 나누어지고 소위 양쪽의 「세력범위(なわばり)」가 생긴다. 이 때 화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사물은 코로 지시하고, 청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사물은 ソ로 지시한다. 이와 같이 코와 ソ로 나누고 양자의 세력범위 이외는 ア로 지시하게 된다'<sup>9)</sup>고 하였는데, 이 인칭구분설은 佐久間 이후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었다.

그러나, 服部(1961)는, 대화의 장면에서 화자가 자기의 뒤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ア라고 말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 堀川(1978)는, 청자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을 ソ로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ソ로 가리키는 대상이 반드시 청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ソ로 지시되는

8) 佐久間鼎(1992), 「指示の場と指す語」 『指示詞』, ひつじ書房,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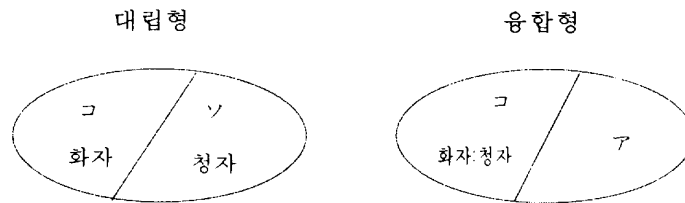
9) 佐久間鼎(1992), 상계서, p.33.

대상은 모두 청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 2.1.3. 이항대립설

三上(1970)는 화자와 청자가 대립하는 장면과, 화자와 청자가 '우리들'이라는 의식이 성립하는 장면을 상정하여, 제 1의 장면에서는 코대 ソ, 제 2의 장면에서는 코대 ア라는 이중의 이항대립(double binary)이 성립한다고 보았다.<sup>10)</sup>

正保(1990)는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대립하는 제 1의 장면을 '대립형', 화자와 청자가 '우리들'이라는 의식이 성립하는 제 2의 장면을 '융합형'이라고 명명(命名)하고 (도 3)과 같이 나타내었다.<sup>11)</sup>



(도 3)

이 이항대립설은, 대립형의 상황에서는 코와 ソ만이 나타나고, 융합형의 상황에서는 코와 ア만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2.1.4. 삼자공존설

堀川(1978)는 코, ソ, ア중 어느 쪽을 쓸 것인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시대상과의 관계에 관한 화자의 느낌상의 문제이며, 바꾸어 말하면 화자의 전체지배라고 하였다.<sup>12)</sup> 가령 ア로 지시하는 영역은 대화의 장에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ア로 지시하는 대상은 대화의 장외의 멀

10) 三上章(1992), 「コソアド抄」 『指示詞』, ひつじ書房, p.35.

11) 正保秀(1990), 「『コソア』の体系」 『日本語の指示詞』, 国立国語研究所, p.69.

12) 堀川和吉(1978), 「指示語の表現性」 『日本語・日本文化』 8, 大阪外国語大学留学生別科, pp.76~77.

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화자가 지시대상을  $\text{ア}$ 로 가리키면 동일 대상을 청자도  $\text{ア}$ 로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text{コ}$ ,  $\text{ソ}$ ,  $\text{ア}$ 의 영역이 전적으로 화자의 주관에 의하여 설정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립형의 상황이든 융합형의 상황이든  $\text{コ}$ ,  $\text{ソ}$ ,  $\text{ア}$  모두가 출현한다는 것이 삼자공존설이며 이의 대표적인 학자는 堀口이다.

吉本啓(1992)는, 지금까지 써 온 ‘세력범위’란 말 대신에 ‘개인공간’ 및 ‘대화공간’이란 말을 써서,  $\text{コ}$ ,  $\text{ソ}$ ,  $\text{ア}$ 의 현장지시용법을 설명하였다.<sup>13)</sup>

## 2.2. 문맥지시

문맥지시용법에 대하여는 阪田雪子, 久野暲, 堀口和吉, 吉本啓, 江口巧 등의 연구가 있다.

阪田(1971)는<sup>14)</sup>, 문맥지시용법을 대화와 문장의 경우로 나누었는데, 대화에서는, 화자 자신의 발언내용이나, 상대방의 발언내용이나에 따라서  $\text{コ}$ ,  $\text{ソ}$ ,  $\text{ア}$ 의 쓰임이 달라지고, 문장에서는, 서술내용을 주체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객관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text{コ}$ ,  $\text{ソ}$ ,  $\text{ア}$ 의 쓰임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한편 久野(1973)는<sup>15)</sup>, 지시대상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서술할 때는  $\text{コ}$ 로 지시하지만,  $\text{ソ}$ 와  $\text{ア}$ 는, 화자 자신이 지시대상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대화의 상대자인 청자가 지시대상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상정(想定)하느냐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堀口(1978)는<sup>16)</sup>, 상대가 표현한 내용이나 일 자체 혹은 그 서술내용에 있는 사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가까운 것으로 강렬하게 지시하고자 하느냐, 특별히 강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시하고자 하느냐, 멀리 떨어진 존재이지만 자신에게 가까운 것으로 강렬하게 지시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즉 화자 자신이 지시대상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text{コ}$ ,  $\text{ソ}$ ,  $\text{ア}$ 는 구분하여 쓰이게 된다고 하였다.

13) 吉本啓(1992), 「日本語の指示詞コソアの体系」 『指示詞』, ひつじ書房, p.111.

14) 阪田雪子(1992), 「指示語「コ・ソ・ア」の機能について」 『指示詞』, ひつじ書房, pp.66~67.

15) 久野暲(1992), 「コ・ソ・ア」 『指示詞』, ひつじ書房, pp.69~73.

16) 堀口和吉(1978), 전게서, pp.83~87.

그리고, 吉本(1992)는<sup>17)</sup>, 지시대상이 화자와 청자 쌍방의 기억속에 존재하는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나에 따라서 コ, ソ, ア의 쓰임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江口(1995)는<sup>18)</sup>, 종래의 문맥지시 ア를 경험지시 아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의 경험지시란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직접적 경험중에 있는 사물을 가리킨다는 의미이다. 그에 의하면 현장지시 아를 제외하면 아는 모두 경험지시용법으로만 쓰인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지시사 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제 3장과 4장에서는 현장지시용법과 문맥지시용법으로 나누어 사용구분의 원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7) 吉本隆(1992), 전제서, p. 117.

18) 江口巧(1995), 「日本語の指示詞コ/ソ/ア」, 『語学科学』, 九州大学言語文化部言語研究会, p. 97.

### Ⅲ. 현장지시용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시사의 현장지시용법에는 거리구분설, 인칭구분설, 이항대립설, 삼자공존설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コ, ソ, ア가 쓰인다는 삼자공존설과 이항대립설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삼자공존설에 바탕을 두되, コ와 ソ는 대립형과 융합형의 상황으로 구분하고, 吉本の 개인공간과 대화공간의 개념<sup>19)</sup>을 원용(援用)하되 공동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1. コ의 용법

여기서는 현장지시 コ의 용법을,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대립형 コ와, 화자와 청자의 공동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융합형 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1.1. 대립형 コ



대립형 코는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1) 「おねがいでけど、**この**お手紙をかまくんの家へもって行って、ゆうびんうけに入れてくれないかい。」

(2年下. p.8)

(2) 「**この**本を読んでごらん。」と、父が本をくれた。「本と印刷」という本だ。その中に、「今、地球上に残っている最古の印刷物は、八世紀に日本で作られたものだ。」と書かれ

19) 吉本隆(1992). 상계서, p. 111. 에서, 개인공간과 대화공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개인공간 ; 각개인에게 속한 것이라고 타인에게 인식되어 있는 영역

대화공간 ; 대화의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 대화 참가자들의 개인공간을 포함함.

ていた.

(4年上. p.103)

- (3) 「これは甲子園の上だ。球場を去るとき、ホーム-ベースの所にしゃがみこんで、泣きながらかき集めた上で、どこにでもあるというものではない。あの暑い夏の日、全力をふりしぼって戦った満足感と、ほこらしさと、くやしさを証言してくれるのが、このびんの中の上なのだ。」

(6年下 p.62)

위의 (1)은 화자가 자기 손에 든(자기가 쓴) 편지를 가리켜 「このお手紙」라고 하였다. (2)는 아버지인 화자가 「本と印刷」라는 책을 건네주며 「この本」이라고 하였다. (3)은 甲子園에서 야구 경기가 끝나고 야구 출전 기념으로 걸어온 작은 유리병속의 흙을 가리키며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가 화자의 손안에 들어있거나 청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다고 인식되는 사물, 즉 화자의 개인공간내의 사물을 가리키는데 쓰이고 있다. 이때 청자(상대)는 화자가 코로 지시한 대상을 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ソ로 인식하게 된다. 즉 위의 예문에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같은 지시대상을 청자는,

(1)' 「そのお手紙……」

(2)' 「その本……」

(3)' 「その上……」「そのびん……」

과 같이 지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립형의 상황에서의 코는,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의 사물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또한 청자는 지시대상이 상대의 개인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여 ソ로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 3.1.2. 융합형 코

융합형 코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여기서 '공동공간'의 개념과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 (4) ながい しっぽです. **これ**は なんの しっぽでしょう.  
**これ**は, くぼぎの しっぽです. (1年上. p.44)
- (5) **この** おみせは, なにやさんでしょう. (1年下. p.17)
- (6) 次のとらが言いました. 「**この**ジャングルが, わしらのものだと言わせないぞ.」 (3年上. p.71)
- (7) 「**この** 島にやってきたたんけん家は一人も生きて帰れないということを, 知ったか.」と, 三番目のとらが言いました.  
 エルマーは, **ねこ**が**この**島にきたことを思い出して, そんなことはうそだと思いました. (3年上. p.72)
- (8) 「**ここ**がお兄ちゃんとあたしの部屋.」  
 「お母ちゃんたち, **ここ**に帰ってくるの.」  
 その夜, ちいちゃんは, ぎつのうの中に入れてあるほしいものを, 少し食べました. (3年下. p.56)
- (9) 「どれ, 見せてごらん. ああ, **これ**はアサガオの種だ.」  
 「あら, アサガオだなんて. **これ**はオシロイバナの種よ. まちがないわ.」  
 どちらが正しいのか分かりませんが, ぼくは, とにかく種をまいてみることにしました. (6年上. pp.94~95)



(4)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꼬리 그림을 함께 보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5)에서 가게가 화자쪽과 청자쪽을 비교하여 어느쪽에 더 가까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같이 길을 걸다가 안보이던 가게가 눈에 들어와서 청자가 “이 가게는 무엇을 파는 가게지?” 하고 물을 수도 있고, 그림책을 같이 보다가 책에 그려져 있는 가게의 그림을 보고 물을 수도 있다. (6)의 정글은 현재 화자와 청자가 함께 위치하고 있는 정글을 가리키고 있다. (7)의 섬은 화자 가까이 있는 섬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호랑이와 에르마가 함께 던져서 있는 섬을 가리키거나, 그림책에 나오는 섬을 함께 보면서 나누는 대화일 수도 있다. (8)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9)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식물의 씨앗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이거나,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식물의 씨앗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앞의 예문들에서 크로 지시되는 대상인 가게, 정글, 섬, 방, 씨앗 등은 김소가 말하는 '화자의 개인공간, 즉 화자만이 속해있는 영역내의 사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서로 대립해 있는 상황이라면 화자의 개인공간(혹은 청자의 개인공간)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가 모여서 '우리들'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융합형의 상황에서, 화자의 개인공간 혹은 청자의 개인공간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위의 지시대상들은 화자의 '개인공간'내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는 공간'내의 대상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는 공간을 '공동공간'이라 할 때, 공동공간내의 대상을 지시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융합형의 상황에서 화자 혹은 청자의 개인공간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동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첫째, 화자와 청자가 모여 '우리들'이라는 의식이 형성된 상황에서 화자의 개인공간과 청자의 개인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양자의 개인공간으로 구분한다면 그것은 이미 융합형이 아닌 대립형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가 흔히 누구의 개인공간이라고 하면, '남이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 '폐쇄된 영역'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느 특정 공간을 화자의 개인공간이면서 동시에 청자의 개인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4)~(9)에 나오는 가게, 정글, 섬, 방, 씨앗 등이 화자 개인공간내의 사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크로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융합형의 상황에서 지시사의 사용 구분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개인공간'이라는 용어 대신에,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공동공간'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기로 한다. '공동공간'은 화자의 개인공간이면서 청자의 개인공간이다. 또한 융합형의 상황에서는 공동공간과 대화공간이 일치하므로, 공동공간과 대화공간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로 한다.

여기서 공동공간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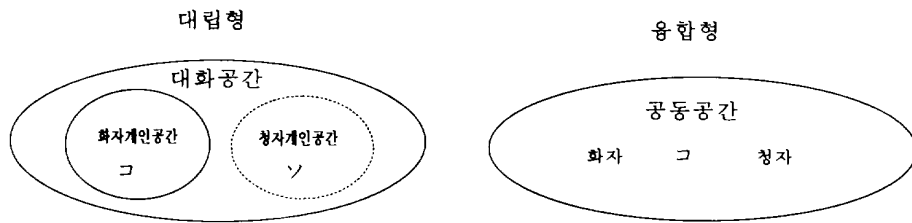
공동공간 :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공유하는 영역이다.

화자의 개인공간과 청자의 개인공간이 겹쳐진 공간이다.

현장지시  $\kappa$ 의 용법을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립형  $\kappa$  :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한다.

융합형  $\kappa$  : 화자와 청자가 자기들의 공동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한다.



(도 4)

· 그림에서 점선 표시는, 그 공간의 위치나 범위에 대한 경계가 특히 유동적임을 의미함(이하 같음).

### 3.2. $\rho$ 의 용법

여기서는 대화공간과 공동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장지시  $\rho$ 의 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2.1. 대립형 $\rho$

대립형  $\rho$ 는 대화공간내에서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외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

상을 지시한다. 앞의 예문 (1)~(3)에 대한 대답 혹은 질문으로 (1)'~(3)'과 같이 대화를 이어 나갈 때 지시하는  $\zeta$ 가 대립형  $\zeta$ 에 해당된다.

(10) (聞き手のネクタイを指しながら)

「**その**ネクタイ買ったんですか。」

(吉本啓, p.110)

(10)은, 청자가 매고 있는 넥타이는 대화공간내에서 청자의 개인공간내의 물건이다. 따라서 화자는 대화공간내에 있는 넥타이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의 사물이 아니므로  $\zeta$ 로 지시하고 있다. 이 물음에 상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11) 「いいえ, **これ**, 買ったんじゃないありません. 父のです。」

이와 같이 현장지시에서 대립형  $\zeta$ 로 지시한 대상은  $\kappa$ 로 답하는 것이 보통이다.

(12) 医院で :

医者 : (患者の腹部を押さえながら) 「**ここ**, 痛みますか。」

患者 : 「**そこ**は, それほどでもありません。」

(金水・田窪, p.132)

(13) 彼はむすこの顔をごしごし手で洗った.

「ちゃん, 痛いよ。」

「何が痛いんだ。」

「**そこ**, 痛いんだよ。」

周作は目の下の傷を手でおさえようとした.

(阪田雪子, p.56)

(12)는, 의사가 환자의 복부를 손으로 만지며  $\kappa$ 로 지시하고, 환자는 자기의 복부를  $\zeta$ 로 지시하고 있다. (13)은,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아들이 자기의 눈밑의 상처를  $\zeta$ 로 지시하고 있다.

(12), (13)은 모두 상대방이 손대고 있는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zeta$ 로 지시하고 있다. 이를 金水敏(킨스이 사토시)와 田窪行則(타쿠보 유키노리)는 '지시대상에 대한 조작가능성(操作可能性)이 지시대상까지의 물리적 거리보다 우선한다'<sup>20)</sup>고 설

명하고 있는데, 이 견해에 동감한다. 지시대상이 물리적으로 자신의 개인공간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만지며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지만 상대방에게 맡기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개인공간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21)</sup>

(14) 夫：「この/その子，おまえによく似ているね。」

(金水・田窪, p.132)

(14)는 화자인 남편이 2m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아내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하는 말이다. 2m정도의 거리란 코나 ソ 어느 것으로도 지시하기가 애매한 거리이다. 이 경우에 아내가 안고 있는 아기가 이들 부부 사이에 낳은 아기라면 남편은 아기를 코로 지시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ソ로 지시하게 된다. 이를 두고, 金水・田窪는 '지시대상에 대한 소유·소속 관계는 물리적 거리에 우선한다고 하였다.<sup>22)</sup> 한편 이 다음에 이어지는 아내의 대답은 자기가 낳은 아이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 지시하게 된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작적관계에 있으며,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도 아내의 개인공간내에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15) A 「ちょっと俺の眼鏡を取ってくれないか。」

B 「どこにあるの。」

A 「どこか**その**辺にあるだろう。」

(正保勇, p.73)

(15)에서, B의 안경있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A가 잘 모르지만 어디엔가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 어딘지 모르는 곳이 화자의 개인공간내가 아님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화자의 개인공간내에 있다면 청자에게 안경을 집어달라고 부탁할 필요없이 화자 자신이 집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시력이 몹시 나빠 자기의 개인공간내에 있는 안경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ソ대신에 그를 썼을

20) 金水敏・田窪行則(1992), 「談話管理理論からみた日本語の指示詞」, 『指示詞』, ひつじ書房, p.132.

21) 위에서 언급한 공간이란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 심리적, 소속·소유 관계, 조작 가능성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金水敏・田窪行則(1992), 상계서, p.133.

것이기 때문이다. (15)에서는, 화자와 청자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마치 화자와 청자의 시야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여 √로 지시하고 있다.

(16) あわてるな、横断歩道はそこにある。

(阪田亨子, p.58)

교통안전 표어인데, 행인이 서있는 곳에서 가까운 어딘가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자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대립형의 √는 대화공간내에서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에 있지아니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 3.2.2. 융합형 √

그리고, 현실적인 대화의 장(場)을 두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화자와 청자의 의식이 대립하는 상황(제 1의 장면 ; 대립형)에서는 그와 √가 대립하여 나타나고, 화자와 청자가 '우리들'이라는 의식이 성립하는 상황(제 2의 장면 ; 융합형)에서는 그와 √가 대립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이항대립설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대립형에서는 √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융합형에서는 √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17) 乗客 : 「そこの煉瓦色の建物の前で止めてくれ。」

運転手 : 「そこの大きな建物ですね。」

(正保勇, p.69)

(17)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택시안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분이다. 이들은 한 택시 안에 있으므로 공동공간내에 있고, 따라서 융합형의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17)과 같이 융합형의 상황에서도 √가 쓰이고 있다.

23) 川端善明(1993), 「指示語」『国文学』38卷 12号, 学燈社. pp.62~63.에서,

川端(카와바타)는, 이 경우에, 승객이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깊이 제약하고 있으므로 대립형의 상황

이에 대하여 正保는, ソ에는 '긴장(緊張)된 ソ'와 '이완(弛緩)된 ソ'의 두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였다.<sup>24)</sup> 위 예문 (13)에서 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나누는 대화에서 「そこ, 痛いんだよ」의 ソ와 같이, 상대방의 세력범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존재가 강하게 관여하는 대립형의 상황에서, 「今, あなたが触れているその部分」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긴장된 ソ라는 것이다. 그리고, (17)과 같은 융합형의 상황에서, ア를 쓰기에는 너무 가깝고, コ를 쓰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이 이완된 ソ라는 것이다. 이 ソ는 대립형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긴장된 ソ와는 달리, '우리'의 세력범위내의 영역을 뜻하는 코로 가리키기에는 너무 멀고, '우리'의 세력범위외의 영역을 뜻하는 아로 가리키기에는 너무 가까운 상황에서 사용된 ソ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융합형 ソ의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8) 「この電気仕掛は戦後あちらから輸入したもんなんですね?」  
と念を押した。  
ところが、返事は全然、否であった。「これはね、**そこ**にいる父親が、そうですね。私が十六の時にやったんだからねえ、お父っちゃん 昭和七、八年かな?」  
彫五郎は向い側で黙々と仕事をしていた父親にきいた。

(阪田雪子, p.57)

- (19) 駅の横を曲がった、あまり広くない通りだった。道ばたに犬が寝そべっていた。そばを  
通っても目をあけないで、いい氣もちそうに四本の足を投げだしていた。  
「**そこ**だよ。」  
素香は犬の寝ている、三軒さきのうちを、あごでしゃくった。

(阪田雪子, p.57)

- (20) 「いい島だ。宿は遠いの。」  
「ううん、**そこ**よ。」

(阪田雪子, p.58)

(18)에서, 화자와 청자가 같이 「電気仕掛」를 코로 지시하는 장소에 있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는 공동공간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자에게 화자는 「向い側」의 아버지를 「そこにいる」라고 ソ로 가리키고 있다.

이라고 해야한다고 하였다.

24) 正保(1990), 전제서, p.72.

(19)는, 화자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으므로 둘이는 공동공간내에 있다. 따라서 융합형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를 향하여, 「こ, 軒さきのうち」를  $\zeta$ 로 가리키고 있다.

(20)도, 함께 있으므로 둘은 공동공간내에 있고 역시 융합형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숙소가 멀었느냐는 질문에,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 곧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착하는 장소를  $\zeta$ 로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공동공간내에 있는 융합형의 상황에서도 지시사  $\zeta$ 는 얼마든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지시  $\zeta$ 의 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립형  $\zeta$  : 대화공간내에서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외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한다.

융합형  $\zeta$  : 화자와 청자가 공동공간밖에 있으면서  $\zeta$ 로 가리키기에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



(도 5)



### 3.3. ア의 용법

현장지시 코, ソ의 용법은 대립형과 융합형의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의 용법의 경우에는 코, ソ의 경우와는 달리, 융합형의 상황만이 존재하고 대립형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 까닭은, 현장지시 아가 쓰이는 상황은 대화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대화 참가자들이 대화공간 밖의 먼 곳에 있는 지시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화공간내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개인공간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대립형의 상황은 무의미해지고, 이 때의 대화공간은 곧 공동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의 상황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1) **あっち**의 へやへ 行って あそぼう.

(1年上. p.49)

(22) 「空の**あの**へんを見ていてごらん. 星を出してみせるから.」  
くまの子は口をあけて, そのあたりの空を見ていました.

(2年上. p.70)

(23) 「だって, **あれ**は, 母さんのかけだもの. ついてくるのは, 母さんが好きだからよ.」  
「かけは, ぼうやをまってるのよ, 草の上で.」  
「見えないよ, どこ.」

(3年上. p.11)

(24) 「**あの**ぼうしの下さあ. お母ちゃん, 本當だよ.」……  
「ほくが, **あの**ぼうしを開けるよ. だから, お母ちゃんは, このあみでおさえてね.」

(4年上. p.61)

(25) 「**あの**ランプは, 黄色い, ほっとする光だもの.」  
「あんなにすばらしいランプが空にあって, ただで世界じゅう照らしてくれるのに, 明かりをつけっぱなしだなんて, まったく氣が知れないよ.」

(5年上. p.88)

(26) 「**あの**箱を持ってきてごらん.」

(5年下.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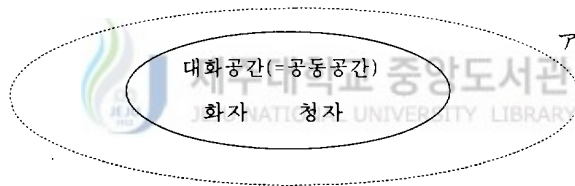
(21)은, 둘이 함께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방 쪽을 가리키고, (22)는, 하늘의 저쪽이라고  $\nearrow$ 로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대화공간 밖을 지시하고 있다. (23)은, 함께 있는 대화자 중 어느 한쪽이 보이지 아니하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림자를 가리키고, (24)는, 모자가 있는 곳이 화자의 개인공간도 아니고 청자의 개인공간도 아닌 대화공간 밖의 어느 곳을 뜻하고 있다.

또 (25)에서는, 하늘에 걸려있는 램프를  $\nearrow$ 로 가리키고 있으므로 대화공간 밖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26)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나누는 대화공간 밖의 상자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nearrow$ 를 써서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장지시  $\nearrow$ 를 써서 지시하는 경우는, 화자와 청자의 개인공간이라는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융합형의 상황에서, 대화공간 즉 공동공간 밖의 먼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지시  $\nearrow$ 의 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장지시  $\nearrow$  : 대화공간 혹은 공동공간밖의 먼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



(도 6)

## IV. 문맥지시용법

문맥지시용법은, 대화나 문장 중에서 이미 서술된 내용에 나오는 사물을 지시대상으로 한다. 이 용법은 현장지시용법과 달리 지시대상이 대화의 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손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며, 청자가 없거나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지시사의 사용은 가능하다.

문맥지시용법은, 상대가 표현한 내용이나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상대표현지시'와, 화자 자신이 표현한 내용이나 일 자체 혹은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지시 대상으로 하는 '자기표현지시'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문맥지시 コ, ソ, ア의 용법을 각각 상대표현지시와 자기표현지시로 나누어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4.1. コ의 용법

#### 4.1.1. 상대표현지시 コ

문맥지시용법 중 상대표현지시 コ는 대화에서 볼 수 있다. 즉, 대화장면에서 상대방의 말 전체를 가리키거나, 상대방의 표현 중에 나오는 대상을 코로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sup>25)</sup>

다음의 예문들은 대화중에서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을 코로 지시하고 있는 예이다.

(27) A 「煙草の火が落ちてあなたのズボンが燃えてますよ。」

B 「こりゃ大変。」

(正保勇, p.82)

25) 阪田雪子は 화자 자신을 중심으로, 화자 자신의 영역내의 것과 외의 것으로 구분하고, 대화에서는 자기 발언 내용은 자신의 영역내의 것으로 간주하여 코로 지시하고, 상대방의 발언 내용은 자신의 영역외의 것으로 간주하여 ソ로 지시한다고 하였다.

(28) A 「お金を貸して下さい。」

B 「**これ**は困りました。今、持ち合わせがないのです。」

(正保勇, p.82)

(27)은, 자신의 바지가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상대방의 말 전체를 크로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크로 지시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강해지고, 지금 곧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처해야 하는 절박함이 강하게 느껴진다. (28)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상대방의 말 전체를 크로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분명히 나타나며,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아쉬움이나 미안함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이 B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B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크를 써서 지시한다.

(29) B 「動物や植物は好きかい。」と、別の宇宙人がきいた。

A 「大好き。」と、よしこは言った。「お花も、小鳥も、犬も、ねこも、みんな。」

B 「**これ**も、報告とはだいぶちがう。」

(5年上, p.73)

(29)는 요시코(A)와 우주인(B)의 대화 내용이다. B는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크로 지시하고 있다. 이 때 「これ」는 A가 말한 '꽃, 새, 개, 고양이, 이 모든 것들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 사실이 B자신이 이미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 때 B는 크로 지시함으로써, A가 보고한 내용이 자기들과 직접적이고 강한 관련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이 되는 일이나 사물을 자신에게 강한 관계를 가진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크로 지시하게 된다.

(30) A 「きのう、鈴木先生が間違って子供さんの靴を學校に持ってきちゃったのよ。」

B 「**こりゃ**面白い。」

(正保勇, p. 82)

- (31) A 「門高の問題は大変だね。」  
B 「これはほんとうに大問題だ。」

(堀口和吉, p.84)

(30)에서는 鈴木선생이 벌인 재미있는 해프닝을 B가 코로 지시함으로써 자신도 매우 흥미가 있음을 공감하는 의미가 되고, (31)에서도 A가 걱정하는 엔고(門高) 문제의 심각성을 B가 코로 지시함으로써 B자신도 역시 엔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공감하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때 코로 지시하게 된다.

#### 4.1.2. 자기표현지시 코

자기표현지시 코는, 자기의 표현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이나 일, 사물을 코로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는, 선행서술내용지시와 후행서술내용지시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4.1.2.1. 선행서술내용지시

선행서술내용지시는 문장, 대화, 독백(獨白)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문장에서 선행서술내용을 지시하기 위하여 쓰인 코의 예이다.

- (32) おゆに入っているじかんがながいと、おとうさんが、ともりのおしりをぼんとたたいて、「人げんせんたくき、おしまい。おかあさんにバトンタッチ。」といます。おかあさんは、にこにこしながら、バスタオルでおとうとをつつみます。こうして、人げんせんたくきは、ぼくたちをいい氣もちにしてくれます。

(1年下. p.68)

(32)에서 「こうして」는 앞의 내용 「おとうさんが,…… おとうとをつつむ」를 가리키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할분담하여 동생을 목욕시키는 과정이 실감나게 표현되고 이어서 이 긴 과정을 「こうして」 한 마디로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는 앞에 나온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결하게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문맥중에서 두드러지게 하는 구실을 한다.

(33) 一つは、たたいて音を出す楽器です。たいこや木きんは、このなかまです。このなかまは、かわでできているか、木でできているか、金ぞくでできているかによって、音がちがいます。フライパンも、このなかまと同じようにして、音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  
(2年上. p.82)

(34) おしちぢめるじっけんと同じほうほうで、「5, 4, 3」の目もりまで、じゅんばんにおし下げます。このとき、ピストンをおし下げればおし下げるほど、おし返す力は強くなります。  
この二つのじっけんから、空気が、おしちぢめ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おしちぢめればおしちぢめるほど、おし返す力が強くなるのが分かりました。このはたらきをりょうして、ちゅうしゃきの先にストローをつけた「空気でっぼう」を作りました。  
(3年下. p.31)

(33)에서 3번이나 나오는 「このなかま」의 코는 모두 자기가 쓴 글인 「たたいて音を出す楽器」를 가리킨다. (34)의 「このとき」는 「じゅんばんにおし下げる時」를 가리키고, 「この二つのじっけん」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실험을 가리키고 있다. 「このはたらき」는 「空気が、……おし返す力が強くなるはたらき」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코가 자기가 쓴 글을 가리키게 되면, 독자와의 거리감을 없애주고, 마치 현재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게 한다. 한편,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락안에서 코로 반복하여 지시되는 대상은 그 단락이나 글 전체의 주요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은 글의 중심생각을 코로 지시하는 경우이다.

(35) 二つの海岸線は、まるではめ絵パズルのように、見事に重なり合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こんな不思議なことが、偶然に起こるものだろうか。  
今から八十年あまり前、ドイツの氣象学者アルフレッド＝ウェゲナ-は、この海岸線のなぞに氣づき、強く興味をそそられた。なぜ、こんなことが起こったのだろうか。あるとき、ウェゲナ-の頭にだいたんな考えがひらめいた。大西洋の東と西の大陸は、もともとくっついていたのではないか。それが二つに分かれて移動し始め、今では何千キロメートルもはなれ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

これは、あまりにも常識をこえた、とっぴな考えであった。けれども、研究を進めるにつれて、ウェゲナーは、この考えの正しさにしだいに確信を深めていった。

(5年上. p.40)

(35)에서, 앞의 두 단락에 나오는 세계의 코는 「二つの海岸線は、…… 見事に重なり合うこと」를 가리키고,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두개의 고덕체의 코가 「大西洋の東と西の大陸は、……, 今では何千キロメートルもはなれてしまった, という考え」를 가리키고 있다. 이들 중 두개의 고덕체의 코가 지시하는 내용이 이 글의 중심생각, 즉 테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의 문장이나 단락의 내용을 코로 지시하는 경우, 코로 지시된 내용은 그 글의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

(36) テレビファソラシド

NHKの「テレビファソラシド」という番組は、あれは朝日新聞でいえば「私の紙面批評」にあたるものではないか、とNHKの人にいったら「なるほど、そういう見方もありますかね」と軽くかわされたことがある。

NHKの美人アナウンサーたちがこのようなショ-番組に登場し、すっかり人気ものになったのも、せんだみつお, 所ジョージ, といったお上品ならざるタレントがしばしば現れるのも、従來のワクを破ったことであるらしい。人それぞれの見方があるはずだが、この番組を見ていると、なかなか手厳しい「私の書面批評」があつておもしろい。

たとえば毒舌家のタモリが現れ、NHK調の話術をまねるには①間をあける②どうでもいいことに関心を示す③ゆっくりと語る, の三点だといって達者な実演を見せる。笑いころげながらつい羽目をはずす女性アナを「きみはNHKらしくないねえ」とからかう。一種のショック療法によって、いわゆるNHK調を茶化し、笑いものにしようとする批評の芽がこの番組にはある……。

この番組はきわめて辛辣な「私の話術批評」にもなっている。

(「天声人語」)

(36)의 테마는, 타이틀에도 있는 바와 같이 「テレビファソラシド(텔레비전 파솔라시도-일본의 NHK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라는 프로그램이며, 둘째 문단의 「このようなショ-番組」에서 코에 의한 지시 표현이 처음 나타난 이후 계속 코로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36)의 코는 글쓴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써나가는 중심생각, 즉 테마를 지시하는데 쓰이고 있다.

다음은 대화중에서 선행서술내용을 지시한 그를 살펴보기로 한다.

(37) では、**この**件は明日にでも部長に伝えて、意向を伺っておきます。

(正保勇, p.91)

(38) 僕の友達に山田という人がいるんだが、**この**男はなかなかの理論家で…

(正保勇, p.91)

(37)과 같이 대화에서 자기표현내용을 코로 지시하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또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느낌이 강해진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관계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38)에서는, '화자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화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 인물이 마치 눈앞에라도 있는 것처럼 생생한 표현이 된다.

다음은, 독백(獨白)이나 자기성찰(自己省察), 개인적인 회상(回想)에서 코로 지시하는 경우이다.

(39) 「一体**これ**はいつまで続くのだろう」

(黒田成幸, p.49)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 자기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궤양에 관한 일이 머리에 떠올라서 (39)와 같이 생각했다고 하면, 이 경우 코가 지시하는 것은 그저 이상물질(부분)로서의 궤양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통증·불쾌감 등 신체에 미치는 작용, 나아가서 그것이 자기의 생활 전체에 미치는 정신적 불안 등을 포함하여, 궤양 때문에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이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0) 「一体**これ**はどんな色をしているのだろう」

(黒田成幸, p.49)

라고 혼자말을 했다면, 이 때는, 오랫동안 궤양을 앓고 있어서, 자기 의식에 작용하는 궤양이 마치 자기 몸의 한 부위에 고착된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코로 지시하는 경우, 자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자기 신체의 일부,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생생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 4.1.2.2. 후행서술내용지시

후행서술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에는 코와 ソ가 있으며, ア는 후행서술 내용지시에 쓰이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문장과 대화의 경우로 나누어 후행서술내용지시의 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장에서 코가 후행서술내용을 지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41) ころころと ころがって、あなの なかに はいって しまいました。  
すると、**こんな** うたが、きこえて きました。「おむすび ころりん すつところりん. ころころ ころりん すつとんとん。」

(1年上. p.68)

- (42) 三年とうげには、昔から、**こんな**言いつたえがありました。  
「三年とうげで 転ぶでない。三年とうげで 転んだならば、三年きりしか生きられぬ。長生きしたけりや、転ぶでないぞ。三年とうげで 転んだならば、長生きしたくも 生きられぬ。」

(3年上. p.81)

- (43) 私は、**こう**考えています。つまり、大学では予算の関係で大型のプロジェクトは実行できない。したがって、民間の活力を十分に活用すべきなんです。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p.167)

(41)의 코는 그 뒤에 나오는 「おむすび……すつとんとん。」을 지시하는 말이고, (42)의 코는 「三年とうげで …… 生きられぬ。」를 지시하는 말이다. 이 두 예문은 과거에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43)의 코는 「大学では予算の関係で……活用すべきなんです」를 지시하고 있는데, 필자(화자)의 사고내용(思考内容)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맥지시 코가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할 때는 필자(화자)가 알고 있는 일화(逸話)나 필자(화자)의 사고내용, 발언내용을 지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자(화자)는 자기의 영역내에 있다고 간주하여 コ로 지시한다.

다음은 대화중에서 コ가 후행서술내용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44) A : 「**こう**いう話聞いたことある。」

B : 「**どう**いう話だい。」

(正保勇, p.109)

(45) 「**この**こと、だれにも話さないというなら教えてあげてもいいけど。」

(正保勇, p.109)

(44), (45)의 コ는, 이제부터 말하고자하는 화자만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나 일화가, 상대방도 매우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 4.2. ソ의 용법

### 4.2.1. 상대방표현지시 ソ

문맥지시용법 중, 상대방표현지시 ソ는 대화에서 볼 수 있다. 즉, 대화장면에서 상대방의 말 전체를 가리키거나, 상대방의 표현 중에 나오는 대상을 ソ로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대화중에서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을 ソ로 지시하고 있다.

(46) A : 「吉四六(きっちょむ)とやら、お前はうその名人というが、ひとつ、わしを上手にだましてみよ。ほうびをうんと取らすぞ。」

B : 「なんかと思えば、**そんな**ご用でござんしたか。**それ**ならそうとご家来に言うてくださりゃあよかったに。わしゃ、うそを言うとき、うその種本を使いますけど、それをうちに置いてきてしまいました。今から取りに行きますによって、との様の馬をかしてくださんせ。」

A : 「いや、**それ**にはおよばん。」との様は、ここぞとばかりに用心して、

「**その**ことなら, 家來に言いつけて取りに行かせる。うその種本とやらは, どこに置いてあるのか言うてみよ。」

B: 「へえ, おつだんのお位はいのかげにかくしてありますがな。」

(4年上. pp.76~77)

(47) A: 「おれあ, このごろ, とても不思議なことがあるんだ。」

B: 「何が。」

A: 「おっかあが死んでからは, だれか知らんが, おれにくりや松たけなんかを, 毎日毎日くれるんだよ。」

B: 「ふうん, だれが。」

A: 「**それ**が分からんのだよ. おれが知らんうちに置いていくんだ。」

B: 「ほんとかい。」

(4年下. pp.65~66)

(46)에서, A의 내용 「わしを上手にだませば, ほうびをうんとあげる」를 B는 ソ로 지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는 B의 내용 「うその種本を取りに行きますから, との様の馬をかしてください。」을 ソ로 지시하고 있다.

(47)에서도, A는 B의 질문에 '도대체 누가 밤이나 송이버섯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ソ로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ソ는 상대방의 발언내용이나 그 내용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한다.



(48) A: 「昨日友達と京都に行きました。」

B: 「**それは**よかったですね. **その**友達は田中さんですか。」

(堀口和吉, p.83)

(48) 「それ」는 「昨日あなたが友達と京都に行ったこと」를 가리키고, 「その友達」는 「昨日あなたが一緒に京都に行った友達」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ソ를 써서 지시하는 것은, 그 지시대상이 상대방의 발언중에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 4.2.2. 자기표현지시 ソ

자기표현지시 ソ는, 자기의 표현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이나 일, 사물을 ソ로 지

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는 선행서술내용지시와 후행서술내용지시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4.2.2.1. 선행서술내용지시

선행서술내용을 지시하는 소는, 크게 문장과 대화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문장중에서 선행서술내용을 지시하기 위하여 쓰인 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9) ゆみ子は、お父さんに花をもらおうと、キャッキャッと足をばたつかせて喜びました。お父さんは、**それ**を見てにっこり笑うと、何も言わずに、汽車に乗って行ってしまいました。ゆみ子のにぎっている、一つの花を見つめながら—

(4年下. p.14)

(50) 雪解け。まるでどろんこの世界だ。長い冬に閉じこめられていた村じゅうの子供たちが、わっと飛び出してくる。やりきれないほどのやかましきだ。しかし、**それは**、春の喜びを告げるものでもある。

(6年上. p.25)

(51) 室町時代の終りごろ、ポルトガル人は、はるばる海をこえて、キリスト教を広めるために日本へやってきた。**その**ころ日本人にとっては初めて見る西洋人で、**その**服装や持ち物、すべてめずらしいことばかりだったにちがいない。

(6年下. p.27)

(49) 의 소는, 「お父さんから花をもらって, キャッキャッと足をばたつかせながら喜んでいるゆみ子のようす」를 지시하고 있다. (50) 의 소는, 「子供たちのやりきれないほどのやかましき」를 지시하고 있다. (51)의 처음 소는, 「室町時代の終りごろ, …… キリスト教を広めるために日本へやってきた」를 지시하고, 둘째 소는, 「初めて見る西洋人」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맥지시 소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중립적인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할 때 쓰인다.

다음은 대화중에서 선행서술내용을 지시하기 위하여 쓰인 소이다.

52) 「どっちにしたって、そんなサービスをすることはないんだ。」  
クロヒョウはそう言って、大きなあくびをしました。

「いいや、そうはいかん。こうやって、動物園にいる以上、やるべきことはやらんな。」

「何を言ってるんだよ。好きで動物園にいるわけでもないのに。」

「好きでいるわけでもないなどと、よく**そんな**ことが言えたもんじゃ。おまえはここで生まれて、ここで育ったから、**そんな**ことが言えるんじゃ。わしなんか、アフリカで生まれて、アフリカの草原で生きてきた。**そりゃあ**、たいへんだったぞ。」

(4年上. p.8)

(52)에 나온 3개의 ソ중, 앞의 두 개의 ソ는 자기의 발언내용중 「好きでいるわけでもない」를 가리키고 있다. 마지막 ソ는 앞에서 표현한 「アフリカで生まれて、アフリカの草原で生きてきたこと」를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화 중에서 선행서술내용을 지시하는 ソ는, 자신의 발언 내용을 중립적인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 4.2.2.2. 후행서술내용지시

다음은, 자기표현지시 ソ가 후행의 서술내용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53) かりゅうどのだれもが**そう**であるように、なかなか話し上手な人でした。

血管のふくれたがんじょうな手を、いろりのたき火にかざしながら、それからそれと、愉快なかりの話をしてくれました。その話の中に、今から三十五、六年も前、まだ栗野岳のふもとのぬま地に、ガンがさかんに来たころの、ガンがりの話もありました。

(5年下. p.4)

(53)의 ソ는, 나중에 나오는 「なかなか話し上手な人」를 지시하고 있다. 이 때에 ソ로 지시되는 내용은 자기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앞의 (4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행서술내용지시 소가 아직 미발표 상태에 있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고내용(思考内容)을 지시하는데 반하여, 소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을 지시하는데 쓰이고 있다.

### 4.3. ア의 용법

#### 4.3.1. 상대표현지시 아

문맥지시용법 중, 상대표현지시 아는 대화에서 볼 수 있다. 즉, 대화장면에서 상대방의 말 전체를 가리키거나, 상대방의 표현 중에 나오는 대상을 아로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은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을 아로 지시하고 있다.

(54) A : 「昨日, 日光に行って来ました。」

B : 「**あそこ**はいつ行ってもいいところですね。」

A : 「ああ, あなたも日光にいらっしゃったことがあるのですね。」

B : 「はい, 何度も行きました。」

(久野暲, p. 71)

(55) A : 「太郎は馬鹿で困ります。」

B : 「本当に**あんなに**馬鹿では困りますね。」

(久野暲, p. 71)

(56) A : 「ベルリンで前畑が優勝したそうですね。」

B : 「**あれ**は本当にすばらしいニュースだった。」

(堀口和吉, p.84)

(54)에서 아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B 자신이 몇 번이고 가본 적이 있는 日光(닛코)」를 가리키고 있다. (55)의 아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太郎지만 당신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그 정도」를 가리키며, (56)의 아는 「前畑가 베를린에서 감격적인 優勝을 거둔 일」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문맥지시 아는, 물리적·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자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지시대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자할 때 쓰인다.

(57) A : 「昨日ボストンで山田さんに会いました。その人, 道に迷っていたので助けてあげました。」

B : 「**その/\*あの**人, ひげをはやした中年のひとでしょ。」

A : 「はい, そうです。」

B : 「あの/その人なら, 私も知っています. 私もあの/その人を助けてあげたことがあります。」

(久野暉, p.69)

(57)에서, B의 처음 대화에서, B가 山田씨를 A로 지시하지 못하고 ソ로 지시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 山田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자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리가 없으며, 따라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B의 두 번째 대화에서는 A로 지시할 수도 있고, ソ로 지시할 수도 있다. 만일 ソ로 지시한다면, 앞의 예문 (48)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대화중에 거론한 인물이고, 자기에게는 제 3자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A로 지시한다면, 위 (54)~(56)과 같이, 지금 보스턴에 있는 山田씨가, 어떠한 형태로든 B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A는 멀리 떨어진 존재이지만, 자기와와 관계가 강한 것을 강렬하게 지시할 때 쓰인다.

#### 4.3.2. 자기표현지시 A

문맥지시에서 자기표현지시 A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가 발언한 내용을 지시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자기가 쓴 글의 내용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우선 자기가 발언한 내용을 A로 지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58) 前畑が優勝したが, **あれ**は大ニュースだった.

(堀口和吉, p.86)

(58)의 A는 「前畑の優勝」을 가리키고 있다. 이 자기표현지시 A는, 前畑의 우승이 과거의 일로 시간적으로는 떨어진 일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화자와 관련이 있으며,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강렬하게 지시하고 있다.

(59) 唯圓(A) : 「今日はよく晴れて比叡山があの様にはっきりと見えます。」

親鸞(B) : (坐わる) 「あの山に今も扱山な修業者がいるのだがな。」

唯圓(A) : 「あなたも昔あの山に永くいらしたのですね。」

親鸞(B) : 「九つの時に初めて登山して、二十九の時に法然様に遇ふまでは、大ていあの山で修業したのです。」

唯圓(A) : 「その頃の事が思はれませうね。」

親鸞(B) : 「あの頃の事は忘れられないね。若若しい精進と憧憬との間にまじめに一寸ち煩悶したのだからな。」

(阪田雪子, p.64)

(59)의 밑줄친 3개의 「あの(山)」은 화자와 청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한 현장지시 A의 용법이다. 또한 A의 세 번째 발언에 나오는 ソ는 B의 발언내용 「九つの時に初めて登山して、二十九の時に法然様に遇ふまで」를 평범하게 지시하고 있는 상대표현지시 ソ에 해당된다. 그런데, B의 세 번째 발언의 A는 자기가 이미 발언한 내용 「九つの時に初めて登山して、二十九の時に法然様に遇ふまで」를 가리키는 자기표현지시 A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을 상대방은 ソ로 지시하고 있는데, 화자 자신은 A로 지시하는 경우에 「あの頃はよかった」라는 뜻으로 과거에 대한 동경(憧憬)이나 회상(回想), 그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A에는 과거의 일에 관한 회상이나 동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자신의 서술 내용을 A로 지시한 경우이다.

(60) ガンとかカモとかいう鳥は、鳥類の中で、あまりりこうなほうではないといわれていますが、どうしてなかなか、あの小さい頭の中に、たいしたちえをもっているものだなということを、今さらのように感じたのでありました。

(5年 F. p.9)

(60)에서는 「ガン·カモ의 머리」를 A로 지시함으로써, 「작지만 대단한 지혜가 들어차 있는」이라는 식으로 감탄과 함께, 「한갓 날짐승에 불과하지만 지혜로운 기러기」에 강한 관심이 있으며, 그 기러기가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까마득한 존재로 받아들여 A로 지시하고 있다.

(61) 入り口近くの台の上に、かわいらしい雪げたが一足かざってあるのが目についたのです。…… おみつさんは、その雪げたがほしくてたまらなくなりました。おみつさんは、しばらくそこに立って、すい付けられたようにその雪げたをながめていました。……市で野菜を売っている間も、あの雪げたのことが、おみつさんの頭をはなれませぬ…



その夜、おみつさんは考えました。「買ってもらえないのも無理はない。自分ではたらいて、お金をつくろう。そして、あの雪げたを買おう。」

(5年下, pp.60~63)

(61)에서는, 밑줄친 두 개의 ソ와 뒤에 나온 두 개의 ア는 모두 「雪げた」를 지시하고 있다. 이 때의 ソ는 현장지시용법으로 눈앞에 있는 「雪げた」를 지시하고 있지만, ア로 지시되고 있는 「雪げた」가 문맥지시용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ア로 지시함으로써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おみつさんの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귀여운 눈신」이라는 강한 관심과 함께,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까마득한 존재로서의 「雪げた」가 잘 나타나고 있다.

(62) わかい大工さんは、道具箱をむしろの上に置いて、そのわらぐつを手にとると、たてにしたり横にしたりして、しばらくながめてから、今度はおみつさんの顔をまじまじと見つめました。……「そのわらぐつ、くんない。」ひよいと顔を上げてみると、まあ、どうでしょう。それは、この間もわらぐつを買ってくれた、あのわかい大工さんなのです。その次の市の日にも、またあの大工さんが来て、わらぐつを買ってくれました。その次も、その次も、おみつさんが市へ出るたびに、あの大工さんが必ずやってきて、不格好なわらぐつを買ってくれるのです。おみつさんは、いつの間にか、その大工さんの顔を見るのが楽しみになっていましたが、……

(5年下, p.70)

(62)에는 ア가 3번이 나오는데 모두 「짚신을 갖고 시장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와서 사주는 고마운 목수」라는 강한 관심과 함께, 지금 눈앞에 있어서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서 ア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표현지시 ア는 화자가 그것에 대하여 강한 관심이 있으나 까마득한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 V. 결 론

이상과 같이, 지시사를 현장지시용법과 문맥지시용법으로 나누고, 현장지시용법은 대립형과 융합형의 상황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상황에 개인공간·대화공간·공동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용법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문맥지시용법은 자기표현지시와 상대표현지시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5.1. 현장지시용법의  $\kappa$ 와  $\lambda$ 는, 화자와 청자가 대립하는 대립형의 상황과, 화자와 청자가 '우리들'이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융합형의 상황으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되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alpha$ 는 융합형의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융합형으로 고찰하였다.

5.1.1. 대립형  $\kappa$ 는, 화자가 자기의 개인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융합형  $\kappa$ 는, 화자와 청자의 공동공간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5.1.2. 대립형  $\lambda$ 는, 대화공간내에서 화자의 개인공간외에 있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융합형  $\lambda$ 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공간내에 있으면서  $\alpha$ 로 가리키기에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5.1.3.  $\alpha$ 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공간 혹은 공동공간밖의 먼 곳에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인다.

5.2. 문맥지시용법은, 지시사  $\kappa$ ,  $\lambda$ ,  $\alpha$ 를, 상대가 표현한 내용이나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상대표현지시'와, 화자 자신이 표현한 내용이나 일 자체 혹은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자기표현지시'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5.2.1. 상대표현지시  $\kappa$ 는, 대화중에서 상대가 표현한 내용이나 그 서술 내용에 있는 사물을,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생생한 일로, 자신에게 강한 관계를 가진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쓰인다.

문장에서 자기표현의 선행서술내용지시  $\kappa$ 는, 독자와의 거리감을 없애주고, 마치 현재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을 지시할 때 쓰인다. 또

한 전체의 글이나 하나의 단락안에서 그로 반복하여 지시되는 대상은 그 글의 주요내용 즉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화에서 자기표현의 선행서술내용지시  $\rho$ 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또는 '당장 해결해야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느낌이 강할 때 사용된다. 지시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화자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화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 인물이 마치 눈앞에라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할 때 쓰인다. 독백(獨白)이나 자기성찰(自己省察)에서 선행서술내용지시  $\rho$ 는,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로 생생하게 받아들일 때 쓰인다.

자기표현의 후행서술내용지시  $\rho$ 는, 필자(화자)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실이나 일화, 사고내용을 지시할 때 쓰인다.

5.2.2. 대화에서 상대표현지시  $\rho$ 는, 상대방의 대화내용이나 그 내용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할 때 쓰인다. 자기표현의 선행서술내용지시  $\rho$ 는, 자기의 선행서술내용을 중립적인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지시할 때 쓰인다. 자기표현의 후행서술내용지시  $\rho$ 는, 자기의 후행서술내용 중에 나오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지시할 때 쓰인다.

5.2.3. 대화에서 상대표현지시  $\rho$ 는, 지시대상이 비록 물리적·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자 자신이 그 지시대상과 어떠한 형태로든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할 때 쓰인다. 대화에서 자기표현지시  $\rho$ 는, 자기의 표현중에 나오는 지시대상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화자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강렬하게 지시하고자할 때 쓰인다.

## 참고문헌

### 한국 문헌

#### <논문>

- 李春伊(1991), 「日本語의 指示語 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  
姜桂千(1992), 「韓日兩國語의 指示語 對照比較」,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  
權重顯(1993), 「日本語의 指示詞「コソア」についての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

### 외국 문헌

#### <교과서>

- 日本文部省檢定小學校教科書(1993), 國語(1年上~6年下), 光村圖書出版(株)

#### <단행본>

- 神尾昭雄(1990), 「情報のなわ張り理論」, 大修館.  
金水敏・木村英樹 田窪行則(1991), 「指示詞」(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4), くろしお出版.  
金水敏・田窪行則(1992), 「指示詞」, ひつじ書房.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1994), 「24週日本文法ツアー」, くろしお出版.  
宮島達夫・仁田義雄 編(1995),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 くろしお出版.

#### <논문>

- 安田喜代門(1928), 「代名詞」, 「國語法概説」中興館.  
佐久間鼎(1936), 「「指す語」の体系」,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 厚生閣.  
山田孝雄(1936), 「代名詞」, 「日本文法学概論」, 宝文館.  
黒田成幸(1972), 「(コソアについて)」, 「日英のことばと文化」, 三省堂.  
金水敏(1977), 「名詞の指示について」, 「國語学と國語史」, 明治書院.  
堀口和吉(1978), 「指示語の表現性」, 「日本語・日本文化」8, 大阪外國語大學留學生別科.  
古田東朔(1980), 「コソアド研究の流れ(一)」, 「指示詞」ひつじ書房.  
橋本四郎(1981), 「指示語の史的展開」, 「日本語学」3, 明治書院.  
高麗雅(1986), 「指示語「コソア」についての考察」, 「日本語教育」60号.

- 遠藤めぐみ(1988),「指示詞コソアの使い分けにおける操作可能性と聞き手の非人格化の影響」,『心理学研究』.
- 福原みどり(1988),「コノ人,ソノ人,アノ人,彼,彼女」,『日本語教育』66号.
- 近藤泰弘(1990),「構文的の見た指示詞の指示対象」,『日本語学』9.
- 金水敏(1990),「方向と選択」,『日本語学』9.
- 高橋太郎(1990),「指示語の性格」,『日本語学』9.
- 田中望(1990),「『コソア』をめぐる諸問題」,『日本語の指示詞』,国立国語研究所.
- 堀口和吉(1990),「指示詞コソアの表現」,『日本語学』9.
- 正保勇(1990),「『コソア』の体系」,『日本語の指示詞』,国立国語研究所.
- 宋晚翼(1991),「日本語教育のための日韓指示詞の対照研究」,『日本語教育』75号.
- 久野暁(1992),「コソア」,『指示詞』,ひつじ書房.
- 金水敏・田窪行則(1992),「談話管理理論からみた日本語の指示詞」,『指示詞』,ひつじ書房.
- 金水敏・田窪行則(1992),「日本語指示詞研究史からへ」,『指示詞』,ひつじ書房.
- 阪田雪子(1992),「指示語『コソア』の機能について」,『指示詞』,ひつじ書房.
- 佐久間鼎(1992),「指示の場と指す語-人代名詞とコソアド」,『指示詞』,ひつじ書房.
- 高橋太郎(1992),「場面と場」,『指示詞』,ひつじ書房.
- 馬場俊臣(1992),「指示語の文脈展開機能」,『日本語学』11.
- 服部四郎(1992),「コレソレアレとthis, that」,『指示詞』,ひつじ書房.
- 福原みどり(1992),「コソアについて」,『日本語教育』76号.
- 三上章(1992),「コソアド抄」,『指示詞』ひつじ書房.
- 吉本啓(1992)「日本語の指示詞コソアの体系」,『指示詞』,ひつじ書房.
- 川端善明(1993),「指示語」,『国文学』38巻 12号. 学燈社.
- 吉田朋彦(1993),「日本語指示詞の直示用法の使用条件」,『東京大学言語学論集』13,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 岡部寛(1994),「『こんな』類と『こういう』類」,『現代日本語研究』第1号,大阪大学文学部日文学科.
- 加地大介(1994),「直接指示と貫時点同一性」,『埼玉大学紀要』人文科学編43巻,埼玉大学教養部.
- 中村祐理子(1994),「コソアドの移りかわり」,『国文学解釈と鑑賞』,94-7.
- 江口巧(1995),「日本語の指示詞コソア」,『語学科学』,九州大学言語文化部言語研究会.
- 河原修一(1995),「現代詩にみる指示語の用法」,『宇大国語論究』7号,宇都宮大学国語教育学会.

- 庵功雄(1995),「テキストの意味の付与について」,『日本学部』,大阪大学文学部日本学研究室.
- 佐佐木泰子(1995),「日本語における結束性の発達と習得」,『国文』83号,お茶の水大学国語国文学会.
- 園田めぐみ(1995),「文脈指示の習得順序について」,日語日文学研究,韓国日語日文学会.
- 宮島達夫 仁田義雄 編(1995),「コノとソノ」,『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くろしお出版.
- 迫田久美子(1996)「指示詞コソアに関する中間言語の形成過程」,『日本語教育』89号.
- 安龍洙(1996),「韓国人学習者の指示詞コソアの習得における母語の影響について」,『日本語学科論集』6号,東北大学文学部日本語学科.
- 林鐘大(1997),「指示詞 コソアの意味機能」,『国文学論集』,上智大学国文学会.
- 李長波(1997),「指示詞の機能と「コソア」の選択関係について」,『国語国文』63巻5号.



---

<Abstract>

## A Study of the Japanese Demonstratives

Kang, Il-Bong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ung-Han

The demonstratives of the Korean language *i* (이), *gu* (그) and *jeo* (저) correspond to the Japanese language *ko* (こ), *so* (そ) and *a* (あ) and are used similarly. I think that this similarity can be either confusing or advantageous in learning the Japanese language. Therefore, I chose the following theme for a more proper and through understanding of Japanese by studying the usage of the demonstrative.

To do this, I surveyed the Japanese demonstrative system and the opinions of several scholars on the use of the demonstrative in section 2 and the usage of *ko*, *so* and *a* in regard to the deictic (demonstrative pronoun) and the anaphora(anaphoric pronoun) in section 3 and section 4.

*Ko*, *so* and *a*, the deictic, are separated into the case of the opposed form between speakers and listeners and the case of the union form when the feeling called "We" is formed between speakers and listeners. A careful examination was made to explain that *ko* and *so* can be used differently in each situation. I considered *a* to be in the union form. Therefore, I surveyed *a* within the situation of the union form.

*Ko*, the opposed form, is used when speakers are indicating an object which is within their own space. *Ko*, the union form, is used when speakers are indicating an object which is within the joint space shared by the speakers and their listeners. *So*, the opposed form, is used when speakers are indicating an object which is outside their own space and the conversation space. *So*, the union form, is used when speakers are indicating an object which is perceived to be too close to indicate with *a* even though they are within a joint space with the listeners. *A* is used when speakers are indicating an object which they think is too far from the joint space or from the conversation space of themselves and the listeners.

I surveyed the counterpart expression demonstrative and the speaker expression demonstrative as used as an anaphora. The former is used when speakers indicate an object which is included in the context that counterpart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expressed and described. The latter is used when speakers indicate an object which is included in the context which they themselves expressed and described.

*Ko*, a counterpart expression demonstrative is used when speakers consider the object expressed by counterparts or described during the conversation as business closely related to the speakers and their own business, not the business of others. *Ko*, a speaker expression demonstrative is used when speakers want to remove the sense of distance from the listeners (readers) and speakers feel as if an event is happening under their very eyes and when speakers consider a job as their own and the job is to be done right now.

*So*, a counterpart expression demonstrative, is used when speakers indicate the conversation of counterparts or when the indicated object is viewed objectively from a neutral standpoint. *So*, a speaker expression demonstrative is used when speakers indicate the object from the description which they referred to objectively in the neutral view.

*A*, a counterpart expression demonstrative, is used when speakers would like to tell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the indicated object without special reason, even though the indicated object is far removed, spatiotemporally, from the speaker. *A*, a speaker expression demonstrative is used when speakers are very interested in the indicated object of their expression, even though it is far removed from them spatiotemporally.

